

제31회 법무사 시험 합격수기 [일부면제]

안녕하세요. 저는 법원직공무원으로 법무사법 제5조의2 제2항에 따라 1차 시험 및 2차 시험 일부 과목 면제를 받았고, 민사소송법, 민사서류작성, 부동산등기법, 등기신청서작성 4과목을 응시한 수험생입니다.

이번 제31회 법무사 시험에 최종 합격이라는 결과를 얻어, 부족하지만 직장 업무와 학습을 병행하며 수험생활을 이어온 경험과 함께 박문각 학원의 도움으로 합격에 이르게 된 과정을 공유하고자 합격수기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1. 수험 계기 및 준비 과정

직장 생활을 하면서 법무사 시험을 준비하는 것은 쉽지 않은 도전이었지만, 법원에 입사하여 법무사 자격증을 취득한다는 것이 저에게 큰 의미로 다가왔고, 실무를 할 때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수험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본격적인 수험 기간은 약 9개월이었으며, 평일에는 퇴근 후 시간을 활용하고, 주말에는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방법으로 수험생활을 진행 했습니다.

직장업무를 병행하는 수험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느낀 점은 시간 관리와 학습의 지속성이었습니다. 하루에 많은 공부량을 목표로 하기보다는, 매일 꾸준히 학습 흐름을 유지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았습니다.

평일에는 강의를 수강했고, 주말에는 계획대로 진행하지 못했던 강의를 수강하고 한 주 동안 학습한 내용을 복습하면서 정리했습니다. 나름의 원칙을 정해 출퇴근 시간과 점심시간 등 자투리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2. 박문각 학원 강의 활용

혼자 공부할 경우 방향성 및 속도를 잃기 쉬운데, 박문각 학원의 체계적인 커리큘럼이 수험 전반의 중심을 잡아주었습니다. 강의를 통해 전반적인 학습 흐름과 출제 포인트를 파악할 수 있었고, 효율적인 정리 방식 또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혁준 교수님의 자세하고 섬세한 강의, 김기찬 교수님의 시험 유형에 맞춤형인 알짜 강의는 수강을 할수록 믿음이 커졌고, 이천교 교수님의 “내가 모르면 남들도 모른다. 불의타는 다른 수험생에게도 똑같이 불의타다. 당황하지 말고 조문부터 최대한 아는 정보를 누락하지 않고 한 줄이라도 더 쫓아내고 노력해라”는 조언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강의를 수강할 때에는 모든 내용을 완벽히 이해하려 하기보다는, 강의에서 강조하는 핵심 내용과 기출과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학습했습니다. 복습 과정에서는 기본서를 다시 확인하며 이해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려 하였고, 직장병행 수험생에게 맞춘 강의 구성 덕분에 제한된 시간 안에서도 효율적인 학습이 가능했습니다.

3. 과목별 공부 방법

[민사소송법] 이혁준 교수님의 강의를 수강하였습니다. 강의 내용이 많다는 점이 부담감으로 느껴지긴 하지만 빠짐없이 듣고 정리하고자 하였고, 특히 기본서 내용을 학습하는 동시에 강의 초반에 배부되는 '미니케이스' 문제와 '두문자 암기자료'를 최대한 반복하여 익숙하게 만들었던 점이 나중에 2순환, 3순환에서의 복잡한 문제에 접근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민사소송법은 매 강의마다 교수님께서 강조하셨던 내용대로 배점에 맞게 답안을 작성하는 것이 시험의 당락을 좌우할 정도로 중요함을 시험 당일 다시 한 번 느꼈습니다. 최종점수는 44점입니다.

[민사사건서류작성] 이천교 교수님의 강의를 수강하였습니다. 법원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소장은 늘 익숙했던 서류였는데 가장 폭넓은 이해와 제반 지식이 연계된 과목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단기간에 모든 내용을 습득하여 고득점을 하기는 쉽지 않았고 시험 당일에는 시간 압박에 실수가 있어 소가와 당사자를 비롯한 형식적 기재사항을 가까스로 기재하는데 그쳐야 했고 최종점수는 13.25점입니다.

[부동산등기법] 김기찬 교수님의 강의를 수강하였습니다. 수험 기간 중 애를 많이 먹고 시간을 가장 많이 할애하고 마음고생을 했던 과목입니다. 교수님의 훌륭한 강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머리에 남는 내용이 없다보니 답답하기만 하였고 결국 시간은 걸리더라도 저에게 익숙한 방법과 내용으로 단권화 노트를 만들었고 이를 계기로 부동산등기법에 어느 정도 체계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법과 규칙의 내용을 틈틈이 써보고 눈에 익히고 강의 초반에 교수님이 말씀해주시는 목차 유형별로 학습한다면 큰 어려움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최종점수는 32.75점입니다.

[등기신청서류작성] 김기찬 교수님의 강의를 수강하였습니다. 도표로 정리된 등기원인서류, 등기의 무자 서류, 등기관리자 서류 등을 통해 쉽게 이해할 수 있었고, 최대한 많이 도표를 작성해보는 것을 반복하였습니다. 위 도식화한 표를 활용하여 답안작성 시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최종점수는 26.5 점입니다.

4. 마무리하며

수험 기간 중 체력적·정신적으로 힘든 시기도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포기하지 말자”는 마음으로 공부를 이어갔습니다. 완벽한 학습보다는 꾸준한 학습이 결국 합격으로 이어진다는 믿음으로 끝까지 버틸 수 있었습니다.

법무사 시험은 철저한 준비와 노력이 필요한 시험이지만, 직장병행 수험생이라 하더라도 시간을 효율적으로 안배하면 충분히 합격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혼자 하면 힘들 수험기간을 박문각 학원의 강의와 학습 방향 제시가 합격에 큰 도움이 되었음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과 함께 전하고 싶습니다.

현재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공부하고 계신 모든 수험생 여러분께 진심으로 응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포기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